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The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Old Document DB in the Foreign Countries

강 순 애(Soon-Ae Ka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해외 소장 고문헌의 공동활용 방안 |
| 2. 해외 소장 고문헌의 정리 | 5. 결 론 |
| 3.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초 록

본 연구는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구축과 공동활용 방안을 다루기 위해 해외 소장 고문헌의 정리, 해외 소장 고문헌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 소장 고문헌의 공동활용 방안을 다룬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해외 소장의 고문헌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1982년부터 해외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영인하여 간략목록으로 발행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려강출판사가 일본소재 한국고문헌목록 1-4를 발간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해외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조사하여 일부의 목록집을 발행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소재 고문서 목록을 조사하고 그중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여 목록으로 간행하였다.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MF목록/원문서비스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고, 각 DB상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며 그에 대한 몇 가지 대안도 제시되었다. 공동활용 방안에서 고문서 정리를 위한 목록 형식 및 기술(시안)은 새로운 표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들은 서지기록을 작성하거나 원문 텍스트를 디지털화할 때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문헌의 DB 구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화된 자료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고문헌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hree aspects of the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old document DB in the foreign countries: i) the processing of old documents, ii)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DB systems of old documents, and iii) the common use of old document DB.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NLK) copied old documents in the foreign countries from 1982 to 2006 and published the brief catalog. The Reogang Publishing company issued four volumes catalogs of old document in Japan.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NRICH) investigated old books and published some catalogs of several organizations in Japan, America, France, and all.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NIKH) investigated old archives and published some catalogs of several organizations in Japa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KORCIS) of the NLK, the Old Books Cultural Heritage in Overseas System of the NRICH, and the Korea History DB System and MF Catalog/ Image System of NIKH were described in the DB systems of old documents, the problems of DB systems were checked over and some alternatives were suggested. In the common use of old document DB, KORMARC format and description rules(draft) for archives should be revised to adopt a new standard such as KS editions, and all the institutes involved should thoroughly follow the standards, when creating bibliographic records and digitizing texts. It is necessary to educate and train the specialists of old documents. A governmen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upervise all the procedures of developing technology for sharing digitized resources, using contents, and cooperating with the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es.

키워드: 해외 소장 고문헌, 고문헌 DB, 고문헌의 DB 시스템

Old Documents in the Foreign Countries, Old Documents DB, Old Documents DB Systems

* 본 연구는 2008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8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9월 14일

1. 서론

한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국내의 고문헌자료의 정리를 위한 목록시스템의 구축과 원문디지탈화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어 각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고문헌의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1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차원의 지식정보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목록형식 및 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하여 종합목록의 구축과 원문 DB를 연계하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사업의 중심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역사분야에서의 지식정보관리사업은 국사편찬위원회 및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다가 2005년부터는 주관기관이 되어 산하에 19개의 전문정보센터협의회를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소장 역사자료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대학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디지탈화하고 전자적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고 중단되었다(강순애 외 2005).

국가 또는 각 기관이 해외 소장의 고문헌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1982년부터 해외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영인하여 간략목록을 만들었다. 이어 려강출판사가 일본소재한국고문헌목록 1~4를 발행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해외전적문화재를 조사하고 그중의 일부는 목록으로 출간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 소재

한국고문서목록을 조사하여 그중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여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DB 구축과 공동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해외 소장 고문헌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을 다루기 위해 해외 소장 고문헌의 정리, 해외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 소장 고문헌의 공동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지니는 한계는 필자가 고문헌 시스템 구축과 DB활용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립의 KORCIS 시스템은 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어서 시각을 달리하여 논문에 인용되고 있고, 몇 가지 대안은 시정이 되지 않아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점에 있다. 그 부분은 논문을 인용하여 전거를 밝혀두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해외 소장 고문헌의 정리와 추후 DB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연구의 근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외 소장 고문헌의 정리

해외 소장의 고문헌이라 하면 해외의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각 기관이 해외 소장의 고문헌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1982년부터 해외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영인하여 간략목록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려강출판사가 일본소재한국고문헌목록 1~4를 출판하였으나 발행하는데서 그쳤다. 문

화재관리국, 한국서지학회 및 해외전적조사연구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일본, 미국, 유럽 등의 해외전적문화재를 조사하고 그중의 일부는 목록으로 출간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 소재 한국고문서목록을 조사하여 그중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여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2.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영인조사 사업을 통해 1982년부터 2006년까지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Ecole des Langues Orientales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2,352종 6,884책을 영인하였다(마이크로필름 4,143롤, 종이 2,678책). 2007년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 소장 『海東諸國紀』 등 희귀고서 500여 책을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원문 DB화 작업 중이다.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의 영인조사 사업을 진행한 26개 기관의 현황은 <표 1> 과 같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영인조사 사업 현황(1982년~2006년, 26개 기관)

연도	영인처	영인 종책수	비고
1982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89책(MF) Ecole des Langues Orientales 160책(MF)	249책	프랑스
1987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西湖古事」 등 91종 230책	91종 230책	日本
1988	靜嘉堂文庫「溪上雜錄」 등 28종 270책(MF) 尊敬閣「標題音註東國史略」 등 16종 110책 內閣文庫「歷代世年歌」 등 21종 220책	65종 600책	日本
1989	東京大學阿川文庫「鄭文翼公遺稿」 등 18종 51책 蓬左文庫「聽訟提綱」 등 27종 77책	45종 128책	日本
1990	東京大學阿川文庫「反正錄」 등 76종 175책	76종 175책	日本
1991	東京大學阿川文庫「三國史略」 등 42종 72책 東洋文庫「書經疾書」 등 40종 78책 天理大今西龍文庫「廣進帖」 등 179종326책	261종 476책	日本
1992	學習院大學圖書館「戶籍大帳」 등 45종 48책	45종 48책	日本
1993	東洋文庫「朴定齋日記」 등 46종108책 杏雨書屋(三木榮文庫)「胎產要錄」 등 13종 19책 龍谷大「最上大乘金剛大教寶王經」 등 15종 55책 東京大總合圖書館「東史合編綱目」 등 1종 33책	75종 215책	日本
1994	東洋文庫「嶠省勝覽」 등 8종 89책 岩瀬文庫「桑韓往復書牘」 등 26종 65책 大谷大學「辨正論」 등 7종 38책 靜嘉堂文庫「嘉覽襍聚」 등 37종 88책	78종 280책	日本
1995	(미국)버클리대「錦營錄史」 등 248종380책(MF 49롤) 杏雨書屋「辛卯式年司馬榜目」 등 18종 28책 靜嘉堂文庫「青海伯世家」 등 8종 16책 早稻田大「必有所濟」 등 8종 31책 駒澤大「北闕重建歌」 등 9종 28책 靜嘉堂文庫「三韓紀事」 등 29종 55책	320종 538책	日本 美國

연도	영인처	영인 종책수	비고
1996	(中國)北京大學「杜工部草堂詩箋」 등 29종 199책(MF 10롤)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喪禮備要」 등 34종 269책 天理大學「佛祖三經」 등 100종 151책	163종 619책	日本 中國
1997	京都大學 河合文庫「各房房稅冊」 등 140종 218책 東北大學附屬圖書館「三國史記」 등 49종88책(MF 15롤)	189종 306책	日本
1998	宮內廳書陵部「醫方集略」 등 5종 269책(MF 41롤)	5종 269책	日本
1999	蓬左文庫「三峰先生集」 등 26종 361책(MF 52롤)	26종 361책	日本
2000	京都大學 河合文庫「禮記臆」 등 184종 411책(MF 41롤)	184종 411책	日本
2001	國立國會圖書館「韓客贈答」 등 22종 58책(MF 5롤) 公文書館(內閣文庫)「三國志」 등 5종 109책(MF 13롤) 筑波大學「大典詞訟類聚」 등 14종 54책(MF 14롤)	41종 221책	日本
2002	프랑스동양언어문화학교「文選」 등 505종 1,192책(MF 145롤)	505종 1,192책	프랑스
2003	宮內廳書陵部「東萊先生十九史詳節」 등 140종 379책(MF 33롤)	140종 379책	日本
2004	宮內廳書陵部「한국인쇄」 등 59종 205책(MF 28롤)	59종 205책	日本
2005	國家圖書館「오산세고」 등 43종 205책(MF 48롤)	43종 205책	臺灣
2006	議會圖書館「연행일기」 등 114종 497책 - 추진 중	114종 497책	美國
합계	26개처 2,352종 6,884책(마이크로필름 4,143롤, 종이 2,678책)		

* 자료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위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된 자료는 매우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의 간략목록을 발행한 것 이외에는 DB구축이나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 려강출판사

려강출판사는 1990년에 『일본소재한국고문헌목록』 1~4를 발행하여 일본소재 고문헌의 기초조사에 기여하였다. 이를 <표 2>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2.3 문화재관리국,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조사연구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이 1991년에 『일본소재한국전적목록』을 발행하였고, 이어서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조사연구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진흥원의 지원금을 받아 日本 名古屋의 蓬左文庫(1991, 155종 1,475책), 日本 京都 京都大 河合文庫(1992, 727종 2,496책), 日本 京都 相國寺(1992, 1,490종 5,967책), 미국 워싱턴 議會圖書館(1993, 451종 2,933책), 미국 뉴욕 컬럼비아大 東亞細亞圖書館(1994, 817종 2,235책), 미국 UC BERKEREY大 東亞細亞圖書館 ASAMI문고(1995, 839종 4,013책), 日本 京都 南禪寺 初雕大藏經(1996, 530종 1,748책), 日本 東京 國立公文書館(1997, 209종 2,455책), 日本 宮內廳 書陵部(1990~2000, 636종 4,678책),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2001, 98종 341책),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100종 224책), 영국 런던 국립도서관(2002, 229종 594책)의 조사 및 일부 목록이

〈표 2〉 려강출판사 발행의 일본소재한국고문헌목록1~4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수록범위
려강출판사	일본소재한국고문헌목록1	동출판사, 1990	
려강출판사	일본소재한국고문헌목록2	동출판사, 1990	
려강출판사	일본소재한국고문헌목록3	동출판사, 1990	
려강출판사	일본소재한국고문헌목록4	동출판사, 1990	

〈표 3〉 문화재관리국,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조사연구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전적문화재목록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수록범위
문화재관리국	일본소재한국전적목록	동관리국, 1991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美議會圖書館所藏韓國本目錄 [1]	동학회, 1994	451종 2,933책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美國COLUMBIA大學 東亞圖書館所藏韓國本目錄 [3]	동학회, 1994	817종 2,235책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美國BERKELEY大學 東亞圖書館ASAMI 文庫 [2]	동학회, 1996	839종 4,013책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河合文庫所藏韓國本 [4]	동학회, 1993	727종 2,496책
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目錄 [5]	동연구회, 1990~2000	636종 4,678책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日本 天理大學 天理圖書館 所藏 韓國本[6]	동연구소, 2005	고서 1,529종 5,373책, 한국탁본 338종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日本 尊經閣文庫 所藏 韓國本 [7]	동연구소,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카자흐스탄 國立圖書館 所藏 韓國本[8]	동연구소, 2007	

이루어졌다. 2003년부터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도하여 日本 天理大學 天理圖書館所藏 韓國本(2005), 日本 尊經閣 文庫 所藏 韓國本(2006), 카자흐스탄 國立圖書館 所藏 韓國本(2007)의 조사 및 목록이 이루어졌다.

앞의 내용 중 목록집으로 정리하여 출간한 것은 위의 〈표 3〉과 같다.

2.4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에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그동안 다양한 고문헌을 영인 간행하였고, 국내외 각종 역사자료를 수집해 왔다. 국외 사료 수집은 1970년대 후반부터 착수하였고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日本 東京大 史料編纂所, 臺灣 國史館, 中國 第1 歷史檔案館, 遼寧省檔案館, 러시아 과학아카

데미 東方學研究所, 日本 滋賀縣立大學 등과 자료 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근현대사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일본과 미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조사 수집하거나 현지인을 고용하여 수집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다양한 자료수집선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한 40여명의 해외사료위원의 협조도 받아 각국의 해외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해왔다. 2001년까지 구축된 DB는 『해외소재한국사자료수집목록집』¹⁾이라는 이름으로 5책이 간행되었다(강영철 2003).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외사료의 수집자료들은 한국사료총서 일부와 해외사료총서로 집대성되었는데 이를 <표 4>로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의 한국사료총서 및 해외사료총서 목록 중 고문헌에 관련된 것은 한국사료총서 제46 상·하로 발간된 일본소재한국고문서: 탈초본 및 영인본이다. 이 목록은 최승희 교수가 조사 탐장이 되어 수집한 것으로 일본 天理大의 250여건,²⁾ 京都大學의 河合文庫 2,500여건,³⁾ 早稻田大의 소장 고문서중 50여건 중⁴⁾에서 출판 가치가 있는 고문서들을 선정·영인한 것이다. 이외에 목록으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京都大學의 호적자료 127건과 金石集帖 200건 및 學習院大學의 호적자료 127건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영인되었다.

<표 4>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료총서 및 해외사료총서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비고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소재한국고문서: 탈초본	동출판사, 2002	한국사료총서제46 上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소재한국고문서: 영인본	동위원회, 2002	한국사료총서제46 下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 국립공문서관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외교사료관 외, 1	동위원회, 2002	해외사료총서 1
국사편찬위원회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 NARA 소장 RG 59.RG 84 외, 1	동위원회, 2002	해외사료총서 2

- 1)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위원회에서 수집한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총목록과 해외자료수집이전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일본 등지에서 2001년도부터 수집한 7,000여 건의 해외 수집 자료이다. 1집은 총목·일본편이고, 2~5집은 미국편 1~4이다.
- 2) 天理大學圖書館所藏 韓國古文書는 일제시대에 今西龍이 蒐集한 朝鮮關係文獻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고문서는 당시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文書名稱도 文書分類도 文書目錄도 없이 도서관 깊숙이 비장되고 있던 것인데, 天理大學의 平木實教授의 특별한 지원과 도서관 당국의 배려로 1999년 11월 1일-2일과 11월 15일-16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을 하여 매 문서에 문서번호가 부여되었고, 文書名·作成年代·發給者·受取者·規格(縱·橫 cm)·內容 등 書誌사항을 기재하여 古文書目錄으로 작성된 것이다.
- 3) 京都大學 도서관에 소장된 河合文庫 한국고문서는 수량은 비교적 많으나 고문서의 종류는 다양하지 못하다. 또한 특별히 귀중한 문서도 많지 못하며, 作成年代도 1600년 이전의 것이 없다는 사실과 偽造文書가 많이 섞여있는 것은 河合文庫 韓國古文書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貢人관계 문서, 其人分米帖文, 其人掖庭坐里文記, 公作米·布관계 문서, 綿紬塵관계문서 등은 중요한 사료가치가 있는 고문서로 평가되었다.
- 4) 早稻田大學의 한국고문서는 高陽郡富原面 소재의 土地賣買와 이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즉 仁祖 3년(1625)-英祖 15년(1739)과 仁祖 26년(1648)-英祖 17년(1741)의 土地賣買文記와 이의 公證을 위한 立案등으로 되어있다. 조선후기의 토지매매와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다.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비 고
국사편찬위원회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 NARA 소장 RG 332.RG 338 외, 2	동위원회, 2002	해외사료총서 3
국사편찬위원회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 NARA 소장 RG 242 <선별노획문서> 외, 3	동위원회, 2002	해외사료총서 4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소장) 한국관계사료목록 (1875~1945)	동위원회, 2003	해외사료총서 5
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연방방성중앙문서보관소) 소련군정 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1946~1947)	동위원회, 2003	해외사료총서 6
국사편찬위원회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4	동위원회, 2004	해외사료총서 7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2	동위원회, 2004	해외사료총서 8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1 : 中國 地域 韓國史 關聯資料 現況.	동위원회, 2004	해외사료총서 9
국사편찬위원회	쉬띠꼬프 일기 : 1946~1948	동위원회, 2004	해외사료총서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동위원회, 2006	해외사료총서 11
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 국립 해논성문서 I	동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2
국사편찬위원회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조사 보고 V	동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3
국사편찬위원회	중국, 대만소재 한국사 자료조사보고 II	동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4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소재 한국사자료조사보고 III	동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5

3.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KORCIS로 칭함)은 KSC5601 기반의 국가자료 공동목록시스템(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이하 KOLIS로 칭함)에 구축 운영 중인 고전적종합목록 DB를 유니코드 기반으로 변환 개발된 시스템이다.

KORCIS(<http://www.nl.go.kr/korcis/>)는 독립형과 센터형의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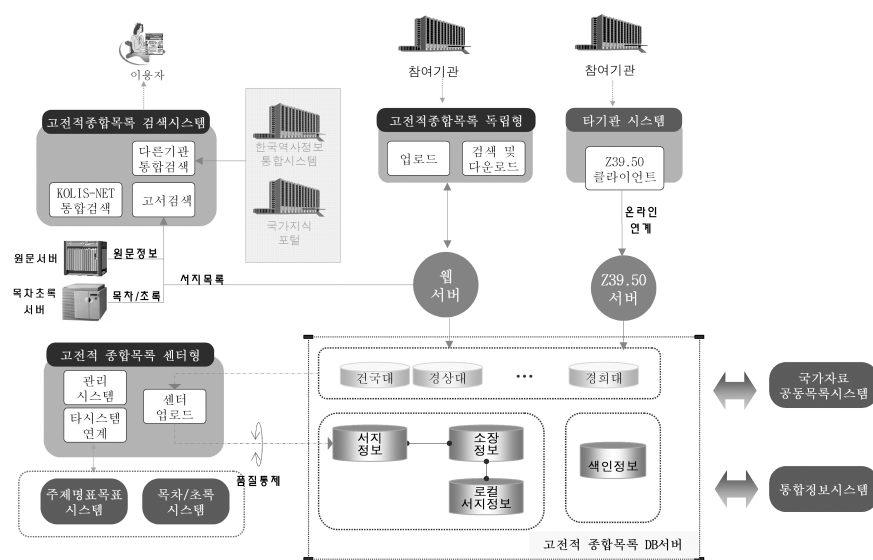
KORCIS-센터형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자관에서 기존의 KOLIS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서지정보, 소장정보, 도서관정보 등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KORCIS-독립형(KORCIS-NET라고도 함, 이하 KORCIS-NET이라 칭함)은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의 협의기관 및 참여기관들이 사용하는 자관의 종합목록데이터관리시스템이다. 이를 부연하면 한국 고전적에 대한 목록, 해제, 원문 등을 인터넷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고전적 소장처를 연계하여 관련기관 및 담당자로 하여금 목록데이터 접근 및 표준화된 목록DB 구축을 용이하도록 서비스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06).

이러한 KORCIS의 센터형과 독립형의 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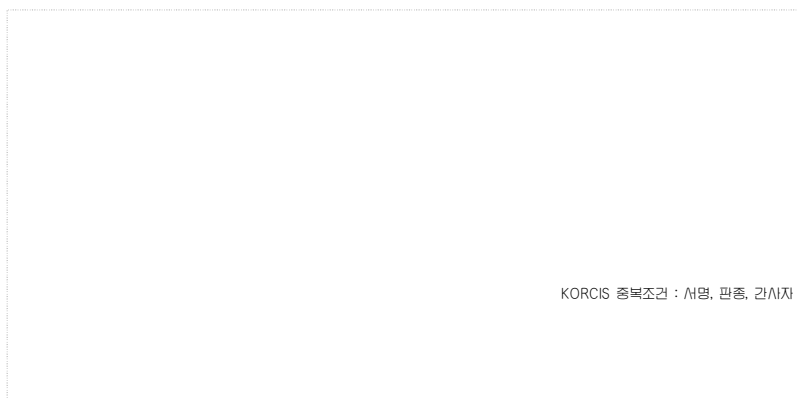
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국립중앙도서관 2006).

이러한 시스템 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KOR-CIS의 업무 흐름은 1) 각 기관의 DB인수 2) KORCIS 반입 3) 데이터 편별 4) 표준화 5) 이용자 이용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를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KORCIS는 목록중심의 종합목록데이터관리시스템이다. KORCIS를 통해 목록을 하는 과정에서 고서목록의 MARC데이터들이 수정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본에 의거하여 정확한 목록기술이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간의 업무가 매우 긴요하다(강순애 2007).



<그림 1> KORCIS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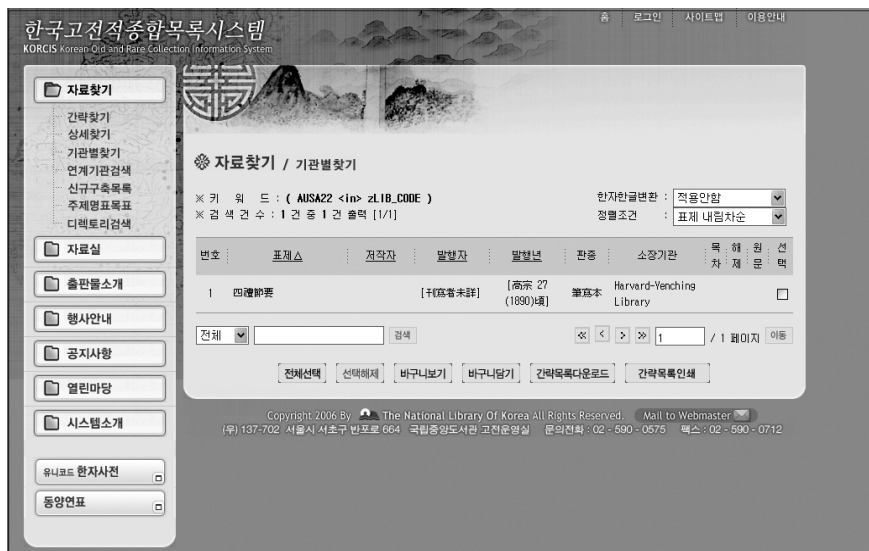
<그림 2> KORCIS 업무 흐름도

앞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중 기관별 검색을 해보면 해외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Harvard-Yenching Library뿐이다. 검

색건수도 1건에 불과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고문헌의 DB 구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4, 그림 5 참조).



〈그림 4〉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기관별찾기(Harvard-Yenching Library)



〈그림 4〉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기관별 자료찾기)



〈그림 5〉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기관별 자료찾기 상세정보)

3.2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소장한국전적 문화재시스템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http://koreanbooks.nricp.go.kr>)은 해외소장 전적문화재에 대한 조사의 증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전적문화재의 현황 및 실체를 파악하여 관련학계에 관련 문헌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의 사료로는 밝힐 수 없었던 전통문화에 대한 고증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문화재관리국,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조사 연구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항목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외소장 한국 전적문화재에 대한 사이버 자료관을 구축하였다.

이 자료 검색 시스템은 해외에 유출된 전적 문화재 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학

계에 희귀 전적에 대한 문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 복원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카자흐스탄 등 4개국 관련기관 13개소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전적문화재 일본 6개 기관 6,011건, 미국 3개 기관 2,223건, 프랑스 2개기관 200건, 카자흐스탄 1개기관 0건(구축중) 총 8,434건의 상세한 서지검색을 할 수 있다.

해외소장한국문화재시스템은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 전문가검색으로 이루어졌다(그림 6 참조).

이들 검색시스템 중 상세검색은 단순검색과 항목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항목별 검색은 서명, 편저자명, 소장처, 판중, 분류의 5개 항목별로 상세검색이 가능하다(그림 7-1, 7-2 참조).

디렉토리검색은 소장국적, 판중구분, 내용분류순으로 되어 있다(그림 8 참조).



<그림 6> 해외소장한국문화재 DB시스템의 메인화면



<그림 7-1> 해외소장한국문화재 DB시스템의 상세검색 화면



<그림 7-2> 해외소장한국문화재 DB시스템의 상세검색 결과 화면



〈그림 8〉 해외소장한국문화재 DB시스템의 디렉토리검색 중 판종구분검색 결과 화면



〈그림 9〉 해외소장한국문화재 DB시스템의 전문가검색 결과 화면

전문가검색은 보다 많은 항목에 대해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이들 시스템에서는 일본 상국사 1,955건, 경도대학 하합문고 730건, 남선사 611건, 내각문고 208건, 궁내청 서능부 628건, 천리대도서관 1,879건, 미국 의회도서관 442건, 컬럼비아대학

7,95건, 버클리대학 986건, 프랑스 기메박물관 101건, 동양어학교 99건의 서지사항을 검색할 수 있고, 카자흐스탄의 국립카흐스탄도서관의 서지검색은 0건인 것을 보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여 시스템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회원기관으로 연결하여 목록업무를 표준화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도 연계하여 통합검색이 되도록 해야 한다.

3.3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MF목록/원문서비스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MF목록/원문서비스 시스템에서 수집된 해외고문헌의 일부가 서비스되고 있다.

우선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http://db.history.go.kr/>)은 국편이 편찬 간행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자료 등 한국사 관련 주요자료를 전산화하여 서비스 하고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한국사기초원전 자료 DB, 국사편찬위원회 편찬간행된 자료 DB, 한국근현대인물자료와 같이 다종의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일관되게 서비스하는 가공 DB, 외부기관의 자료 DB 등 40여종의 자료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부터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어 2004년부터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국사편찬위원회 자체 DB를 통합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통합서비스하고 있다. 2007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HOI(History Object Identifier) 체계가 확립되어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URL(<http://db.history.go.kr/>)이 분리되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

eahistory.or.kr)은 역사관련 전문기관이 전문센터로서 참여하여 구축한 역사자료 DB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전문센터로서 참여하는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독립기념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시민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준경각,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쟁기념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다. 이 시스템은 서로 상이한 시스템간의 데이터를 연동하여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관이 구축한 각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승정원일기의 경우 국편의 텍스트 DB, 규장각의 이지지 DB, 민족문화추진회의 번역 DB가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이용자입장에서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들어가면, 승정원일기의 텍스트, 이미지, 번역문을 동시에 이용할 수가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는 한국사료총서 제46 上·下로 발간된 일본소재한국고문서의 타이틀과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MF목록/원문서비스시스템’(<http://mf.history.go.kr/>)은 한국사와 관련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귀중본, 고서, 고문서, 대마도종가문서(기록, 고문서, 회화, 서계), 신문, 잡지, 북한자료, 족보, 일반자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고잡지, 호적, 재판기록, 사진 등의 M/F 자료를 디

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京都大學의 호적자료 127건과 金石集帖 200건 및 學習院大學의 호적자료 127건이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상세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편의 고문서 자료들은 가치 있는 것만을 선별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MF목록/원문서비스시스템에 분산 구축되어 있으므로 통합·이용하기가 어렵고 DB 구축이 되지 않은 자료들은 더욱 이용하기가 어렵다.

국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5월에 전자사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국편의 수집 자료의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전자화하여 업무의 효율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메뉴상의 '전자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소장자료검색, 해외수집자료, MF목록/원문서비스'라는 3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진척되면 그간에 이루어진 여러 국편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원문 및 이미지 자료와 연계되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목록 정보 제공 및 최종 페이지와 연결된다. 또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시소러스와 연계되고 사료관리 시스템의 일관 공정이 고도화된다(국사편찬위원회 2008).

국사편찬위원회의 DB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메뉴항목에서 연계기관의 사이트로 들어가 국편의 자료를 찾으려 되어 있어 검색이 불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URL 방식으로 링크되어 상호 연결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해외 소장 고문헌의 공동활용 방안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소장한국고전문화재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MF목록/원문서비스시스템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 간의 공동활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고문헌자료의 정리를 위한 목록형식 및 기술의 표준화와 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고문헌의 정리를 위해 고문헌정리의 표준화에 기여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0년 11월 13일 고서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및 형식(KS X 6006-6)을 KS X 6006-6으로 제정·공포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2000).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495개 도서관 및 해외의 문헌정보유통기관을 연결하는 도서관 정보망을 형성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및 목록DB 구축에 주력하였고, 1995년부터 소장 고서에 대한 원문DB 구축을 시작하여 2004년 말에 복본을 제외한 모든 고서원문DB가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한편 2004년 3월부터는 한국 고전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협의체인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를 결성하고 2005년부터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과 2006년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고문서학회가 추진하여 완성한 고문서용 한국고문서기술규칙(안) 및 한

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을 KS로 제정하여 고문서정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 KORMARC-통합서지용-이 적용되면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각 컬렉션별로 자세한 목록규칙 및 목록형식이 표준화 되면서 통합목록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지도, 금석문, 목판 현판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나가는 데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강순애 2007).

국사편찬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의 통합과 공동 활용을 위해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국편을 중심으로 18개 전문정보센터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활성화와 역사자료 통합체제 구축 및 표준화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2008년 5월에 시작된 전자사료관 시스템은 '소장자료검색, 해외수집자료, MF목록/원문서비스'라는 3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진척되면 국편내의 통합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URL서비스는 856tag에 기입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연결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관련 전문센터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금석문만 한국역사정보시스템에 연동되고 있어 해외소장 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의 자료는 통합검색을 할 수가 없다. 위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회원기관으로 참여하면 목록기술의 형식 및 표준화도 가능하고 목록의 통합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고문헌의 서지DB와 원문의 text DB

의 구축에서 정확한 서지정보와 원문의 입력 및 원문이미지와의 연결을 통한 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다.

각 기관이 목록서지정보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통합구축을 하게 되면 서지의 표준화와 서지DB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원문의 text DB 구축에 있어서 해외 소장 국문헌은 아니더라도 국내 고문헌DB시스템에서 제기된 사례를 보면, 남명학고문헌시스템에서는 한자결락과 입력의 오류, 해당이미지와 텍스트의 착락이 지적되었고(최식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에서는 본문텍스트에 입력된 해당 작품의 장르와 필자의 오류, 원문입력의 오기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재철 2006). 한국국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유교넷(Ugyo net) 시스템에서는 구두를 잘못 끊은 경우와 한자 입력의 오류가 지적되었다(이군선 2006).

이러한 문제는 한문 text DB를 구축하는 경우는 언제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한문 text의 해독이 가능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숙지할 수 있는 인력이 수급되어야 한다. 해외 소장 고문헌은 현지 방문이 어렵고 방문한다 하더라도 쉽게 원문을 볼 수 없으므로 원문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고문헌의 DB구축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문헌의 DB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조성되고 각 기관별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국가 및 각 기관이 가장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문헌 정리의 여러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간의 자원공유와 광

범위한 이용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실무자들이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쌓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강순애 2007). 특히 해외소장 고문헌은 해외에서 한국학문헌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교육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006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 까지 세계 10개국 국립대학도서관 한국학사서 19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던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을 정규화하고 교육프로그램안에 한국 고서의 정리, 고서 MARC, DB구축, 공동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 개발, 고문헌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 기구는 고문헌의 중심센터가 되어 고문헌의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발주, 표준화, 기관 간의 연계, 저작권보존, 협력문제 등의 총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산하기관으로는 고문헌시스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을 연계하고, 각 지방 및 해외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고문헌 기관들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KORMARC-고서용 및 고문서용, 기타 자료들의 표준화 제정과 통합목록의 구축을, 국사편찬위원회는 메타데이터의 개발과 자료 호환 및 한자처리에 관한 부분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규장각은 자료의 해제와 내용 및 연구를 책임지고 각 기관이 책임진 부분들을 공유해나가면 지방 및 해외 거점기관들과도 각 부분이 자

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관간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자원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담기구에서 세계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국제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강순애 2007).

5. 결론

해외 소장 고문헌 DB구축과 공동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외 소장 고문헌의 정리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영인조사 사업을 통해 1982년부터 2006년까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Ecole des Langues Orientales*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2,352종 6,884책을 영인하여 간략목록을 발행하였다. 려강출판사는 1990년에 『일본소재한국고문헌목록』 1~4를 발행하여 일본소재 고문헌의 기초조사에 기여하였다.

둘째, 문화재관리국이 1991년에 『일본소재 한국전적목록』을 발행하였고, 이어서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조사연구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진흥원의 지원금을 받아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중요 기관의 조사 및 일부 목록이 이루어졌다. 2003년부터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도하여 일본, 카자흐스탄의 중요기관의 고문헌의 조사 및 목록이 이루어 졌다.

셋째,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외사료 수집은 1970

년대 후반부터 착수하였고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일본, 중국 및 러시아의 일부 기관과 자료 교류 협정을 맺고 근현대사 해외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물의 총서인 한국사료총서 및 해외사료총서 목록중 고문헌에 관련된 것은 한국사료총서 제46 上·下로 발간된 일본소재한국고문서: 탈초본 및 영인본이다. 이 목록은 수집자료중 출판가치가 있는 고문서들을 선정·영인한 것이다. 이외에 목록으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京都大學의 호적자료 127건과 金石集帖 200건 및 學習院大學의 호적자료 127건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조사되었다.

2)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은 KSC5601 기반의 국가자료공동목록 시스템(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KOLIS)에 구축 운영중인 고전적종합목록 DB를 유니코드 기반으로 변환 개발된 시스템이다. 해외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Harvard-Yenching Library뿐이다. 검색건수도 1건에 불과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고문헌의 DB 구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은 문화재관리국,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조사연구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항목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외소장 한국 전적문화재에 대한 사이버 자료관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카자흐스탄 등 4개국 관련기관 13개소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전적문화재 일본

6개 기관 6,011건, 미국 3개 기관 2,223건, 프랑스 2개기관 200건, 카자흐스탄 1개 기관 0건(구축중) 총 8,434건의 상세한 서지검색을 할 수 있다.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여 시스템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회원기관으로 연결하여 목록업무를 표준화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도 연계하여 통합검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MF목록/원문서비스 시스템에서 수집된 해외고문헌의 일부가 서비스 되고 있다.

우선 한국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국편에서 편찬 간행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자료 등 한국사 관련 주요자료를 전산화하여 서비스 하고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이다. 2004년부터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국사편찬위원회 자체 DB를 통합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통합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는 한국사료총서 제46 上·下로 발간된 일본소재한국고문서의 타이틀과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MF목록/원문서비스시스템’은 한국사 관련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M/F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京都大學의 호적자료 127건과 金石集帖 200건 및 學習院大學의 호적자료 127건이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상세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편의 고문서 자료들은 가치 있는 것만을 선별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MF목록/원문서비스시스템에 분산 구축되어

있으므로 통합·이용하기가 어렵고 DB 구축이 되지 않은 자료들은 더욱 이용하기가 어렵다. 국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5월에 전자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메뉴상의 '전자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소장자료검색, 해외수집자료, MF목록/원문서비스'라는 3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DB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메뉴항목에서 연계기관의 사이트로 들어가 국편의 자료를 찾도록 되어 있어 검색이 불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URL 방식으로 링크되어 상호 연결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를 구축하고 이들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문헌자료의 정리를 위한 목록형식과 기술의 표준화와 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고문서학회가 추진하여 완성한 고문서용 한국고문서기술규칙(안) 및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을 KS로 제정하여 고문서정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 KORMARC -통합서지용-이 적용되면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각 컬렉션별로 자세한 목록규칙 및 목록형식이 표준화 되면서 통합목록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지도, 금석문, 목판현판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나가는 데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로 18개 전문정보센터협의

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갖추었다. 국편은 '소장자료검색, 해외수집자료, MF목록/원문서비스'라는 3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전자자료관시스템의 구축이 2008년 5월부터 시작되었고, 이 사업이 진척되면 국편내의 통합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URL 서비스는 856tag에 가입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연결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관련 전문센터로서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의 자료를 통합검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회원기관으로 참여하여 목록기술의 형식 및 표준화를 통한 목록의 통합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문헌의 서지DB와 원문의 text DB의 구축에서 정확한 서지정보와 원문의 입력 및 오류의 정정, 원문이미지와 연계의 연결을 통한 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립이 통합목록의 구축과 서지DB의 공동활용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정확한 서지정보 입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문의 text DB의 구축에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문 text의 해독이 가능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숙지할 수 있는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다. 해외소장 고문헌은 반드시 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고문헌의 DB구축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고문헌의 DB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조성되고 각 기관별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고문헌정리의 여러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자원공유와 광범위한 이용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기관의 실무자들이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쌓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한국학사서위크숍의 교육프로그램안에 한국 고서의 정리, 고서 MARC, DB구축, 공동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 개발, 고문헌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고문헌의 중심센터가 되어 고문헌의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발주, 표준화, 기관간의 연계, 저작권보존, 협력 문제 등의 총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산하기관으로는 고문헌시스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을 연계하고, 각 지방 및 해외 거점이 될 수 있는 고문헌 기관들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순애. 2007. 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서지학연구』, 38: 5-46.
- 강순애. 2007. 한국 고문헌 정리에 있어서 고서용 한국문헌자동화기술규칙 및 형식의 적용과 실제. 『고전적』, 3: 39-44.
- 강순애 외. 2005.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姜英哲. 2003. 國史編纂委員會의 史料 수집과 研究 編纂. 『사학연구』, 70: 19-32.
- 국립중앙도서관. 2000.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고서용-(KS X 6006-6)』.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06. 2006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구축 완료보고회.
- 국사편찬위원회. 200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성남: 국사편찬위원회.
- 이군선. 2006. 한국국학진흥원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 27: 151-161.
- 정재철.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 27: 66-79.
- 최식. 2007. 문천각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 27: 31-54.
-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 <<http://koreanbooks.nricp.go.kr>>.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http://db.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목록원문시스템. <<http://mf.history.go.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history.or.kr>>.

